

KOSDAQ | 제약과생물공학

# 지에프씨생명과학 (388610)

## 화장품 융복합 바이오 소재 전문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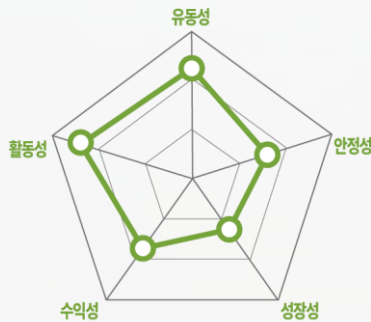
### 체크포인트

- 지에프씨생명과학은 식물세포·스킨마이크로바이옴·엑소좀 기반 융복합 바이오 소재 플랫폼을 보유한 화장품 바이오 소재 전문기업
- 글로벌 고객사향 신규 소재 공급과 GFCCELL EXO 중심의 스킨부스터 해외 진출을 통해 수출 성장 기반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신규 프리미엄 소재 공급, 스킨부스터 매출 확대, 판관비 정상화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 기대됨
- 2026년 예상실적 매출액 247억원, 영업이익 32억원, 당기순이익 38억원 기준 현 주가 밸류에이션은 PER 10.2배, PBR 1.4배, PSR 1.6배 수준으로, 동종 화장품 소재 기업 대비 주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지 않은 구간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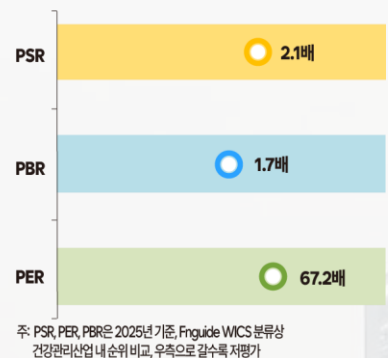
### 주가 및 주요이벤트



### 재무지표



### 밸류에이션 지표



# 지에프씨생명과학 (388610)

Analyst 박선영 sypark@kirs.or.kr

RA 정수현 sh.jeong@kirs.or.kr

KOSDAQ

제약과생물공학

## 화장품 바이오 소재 분야의 기술형 강소기업

지에프씨생명과학은 식물세포, 스킨마이크로바이옴, 엑소솜, 바이오포물레이팅 기술을 기반으로 화장품용 바이오 소재를 개발·생산하는 기술형 소재기업. 당사는 실제 국내외 주요 스킨케어 제품군에 적용된 소재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료 발굴부터 제형화, 상업화까지 이어지는 소재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K-뷰티 밸류체인 내 고기능성 소재 공급사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중

## 스킨부스터 중심 글로벌 성장성 확대

당사는 기존 내수 중심의 소재사업에서 글로벌 고객사향 신규 개발 소재 공급과 GFCELL EXO 중심의 스킨부스터 해외 진출을 통해 성장 범위를 확대하는 중. 중동, 서남아시아, 중국, 일본, 유럽 등에서 인증 및 유통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스킨부스터는 기존 원료사업 대비 제품 단가와 부가가치가 높은 응용 제품으로 수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제품군으로 판단됨

## 2026년 실적 회복 구간 진입

2026년 실적은 매출액 247억원(YoY +39.2%), 영업이익 32억원(YoY +731.8%), 영업이익률 13.0%(YoY 10.8%p 개선)를 전망. 2025년에는 코스닥 이전상장 관련 일회성 비용과 신사업 투자비용으로 수익성이 부진했으나, 2026년에는 신규 프리미엄 소재 공급, 스킨부스터 수출 확대, 판관비 정상화가 반영되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142	154	168	177	247
YoY(%)	31	9.0	8.9	5.4	39.2
영업이익(억원)	6	7	17	4	32
OP 마진(%)	4.3	4.6	10.1	2.2	13.0
지배주주순이익(억원)	3	21	-59	6	38
EPS(원)	79	505	-1,417	115	717
YoY(%)	-78.8	542.5	적전	흑전	525.5
PER(배)	93.9	10.5	N/A	123.8	10.2
PSR(배)	2.2	1.4	3.6	3.9	1.6
EV/EBITDA(배)	18.9	14.2	21.1	35.4	6.5
PBR(배)	3.5	N/A	5.9	3.1	1.4
ROE(%)	3.8	54.6	-122.2	3.2	14.8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 Company Data

현재주가 (5/20)	7,300원
52주 최고가	32,550원
52주 최저가	7,300원
KOSDAQ (5/20)	1,056.07p
자본금	26억원
시가총액	387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5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4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4억원
외국인지분율	2.26%
주요주주	강희철 외 6인 36.00%
	비엔비자산운용 5.88%

### Price & Relative Performance



###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32.6	-48.0	-59.7
상대주가	-25.0	-56.1	-72.7

###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 기업 개요

### 1 회사 개요

**지에프씨생명과학은  
스킨마이크로바이옴과 엑소좀  
기술을 중심으로 한  
화장품 바이오 소재 전문기업**

지에프씨생명과학은 스킨마이크로바이옴과 엑소좀 기술을 중심으로 화장품용 바이오 소재를 개발·생산하는 화장품 바이오 소재 전문기업이다. 동사는 2002년 설립 이후 화장품 원료 개발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왔으며, 식물세포, 스킨마이크로바이옴, 엑소좀, 펩타이드, 바이오포물레이팅 등 기능성 바이오 소재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왔다. 2018년 현재 사명인 지에프씨생명과학으로 변경한 이후, 화장품 원료 기업에서 바이오 소재 기반의 기능성 화장품 소재 기업으로 사업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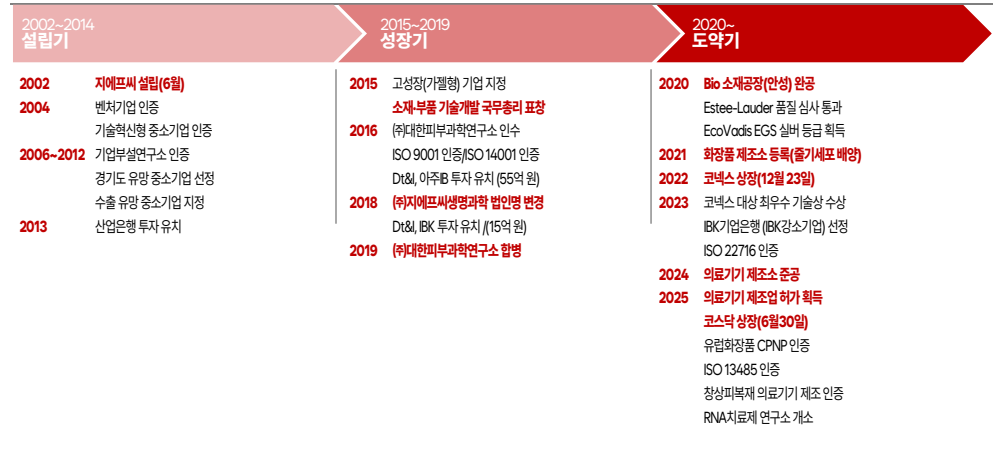
동사는 사업 기반 확대를 위해 관련 기업 합병도 진행하였다. 2019년 6월 인체적용시험 및 피부임상 평가 역량을 보유한 (주)대한피부과학연구소를 합병하며 임상사업부문을 내재화했고, 2021년 9월에는 바이오 소재 및 응용 제품 개발과 관련된 (주)바이오톡스를 합병하였다. 이를 통해 동사는 화장품 바이오 소재 개발·생산 역량과 인체적용시험 기반의 효능 검증 역량을 함께 보유하게 되었으며, 단순 원료 공급을 넘어 고객사의 제품 개발과 효능 입증 과정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구축하였다. 동사는 2022년 12월 코넥스시장에 상장했으며, 이후 기술성평가를 거쳐 2025년 6월 30일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하였다.

2025년 기준 매출액은 177억원으로, 사업부문별 매출비중은 소재사업부문 77.1%, 임상사업부문 22.9%로 구성된다. 소재사업을 통해 기능성 바이오 원료를 공급하고, 임상사업을 통해 효능 검증과 고객사 접점을 확보하는 구조는 동사가 화장품 개발 밸류체인 내 기술 기반 파트너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동사는 현재 화장품 바이오 소재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스킨부스터, 의료기기, 자체 더마 브랜드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기존에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 및 ODM/OEM 고객사향 소재 공급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글로벌 고객사향 신규 개발 소재 공급, GFCCELL EXO 등 스킨부스터 제품군 확대, 자체 브랜드 fmk 출시 등을 통해 수익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는 기존 B2B 화장품 소재기업에서 바이오 소재 기반의 완제품·응용 제품 기업으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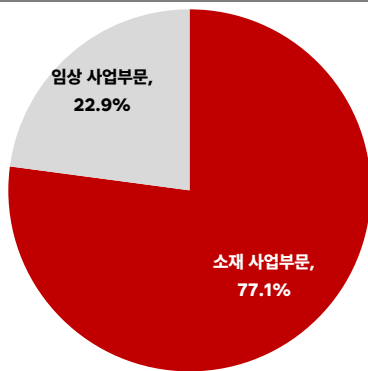
2026년 3월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강희철 대표이사로 3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35.9%이다. 추가로 2026년 3월 9일 공시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비엔비자산운용이 동사의 지분을 5.92%를 공시한 바 있다.

회사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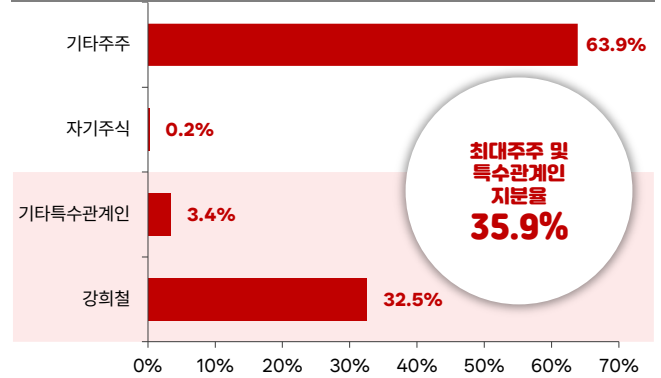
자료: 지에프씨생명과학,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문별 매출비중(2025년 기준)



자료: 지에프씨생명과학,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주현황(2026년 3월말 기준)



자료: 지에프씨생명과학,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사업영역**

2025년 매출액 177억원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비중은 소재사업부문 77.11%, 임상사업부문 22.89%로 구성된다. 동사의 핵심 사업은 소재사업과 임상사업으로 구분된다. 소재사업은 스킨마이크로바이옴, 엑소좀, 식물세포, 펩타이드, 바이오포물레이팅 등 화장품용 고기능성 바이오 소재를 개발·생산해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 및 제조사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임상사업은 기능성화장품의 효능 평가와 표시·광고 실증자료를 제공하는 인체적용시험 서비스 사업으로, 화장품 기업의 제품 개발 및 마케팅 과정에서 필요한 객관적 검증 데이터를 제공한다.

**(1) 소재사업부문**

소재사업부문은 스킨마이크로바이옴과 엑소좀 기술을 기반으로 기능성 화장품 원료를 개발 및 생산하여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사 및 화장품 ODM사 등에게 공급하는 동사의 핵심 사업부문이다. 최근에는 단순 원료 공급을 넘어 스킨부스터 등 완제품 형태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며 사업모델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스킨마이크로바이옴은 피부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총칭으로, 피부의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이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균집을 이루고 있는 것을 뜻한다. 동사의 스킨마이크로바이옴 사업은 피부에 존재하는 미생물 생태계를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사는 자체 균주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피부 효능에 적합한 균주를 선별하고, 이를 발효 및 배양 공정을 통해 화장품 소재로 상용화한다. 해당 소재는 피부 장벽 강화, 진정, 보습, 두피 케어 등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에 적용되며, 글로벌 화장품 시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엑소좀**

엑소좀은 나노 사이즈의 세포외소포의 한 종류로, 유래된 세포의 기원에 따라 세포 특이적인 많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동사는 고순도·고수율 엑소좀 분리 및 정제 기술을 기반으로 식물세포, 유산균, 연어 정소 등 다양한 원료에서 엑소좀을 추출하여 화장품 소재로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엑소좀은 세포 간 신호전달 기능을 기반으로 피부 재생, 탄력 개선, 진정 등 프리미엄 기능성 소재로 활용되며, 고가 제품군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엑소좀은 동사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동사가 추진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스킨부스터**

스킨부스터는 엑소좀 및 바이오 소재를 기반으로 한 응용 제품 영역으로, 동사의 사업모델이 원료 중심에서 완제품으로 확장되는 단계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스킨부스터는 피부 개선을 목적으로 피부과 및 에스테틱 채널에서 사용되는 제품으로, 기존 화장품 대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다. 동사는 자체 개발한 엑소좀 및 기능성 소재를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가기 및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으로의 진출도 기대된다.

**피부에 존재하는 미생물 생태계를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세포 간 신호전달 기능을 기반으로 피부 재생, 탄력 개선, 진정 등 프리미엄 기능성 소재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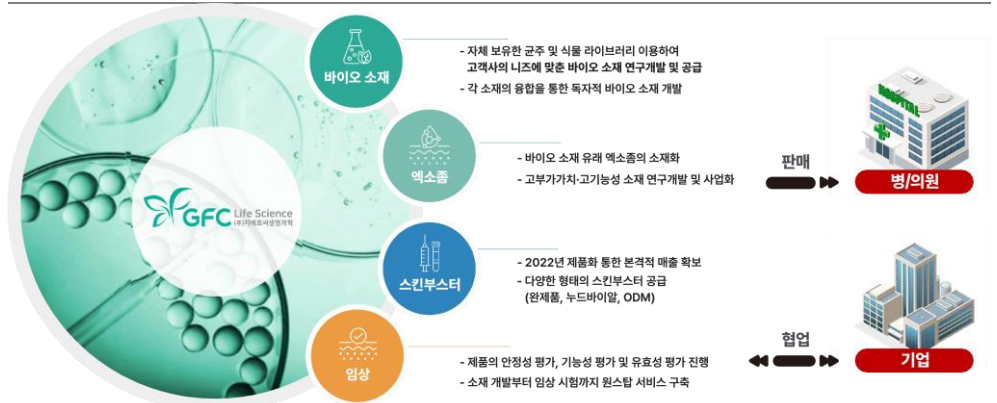
**원료 중심의 사업모델이 완제품으로 확장되는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됨**

**(2) 임상사업부문**

임상사업부문은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및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체적용시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매출 창출과 함께 소재사업과의 시너지를 동시에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화장품 기업은 기능성 표시 및 광고를 위해 객관적인 시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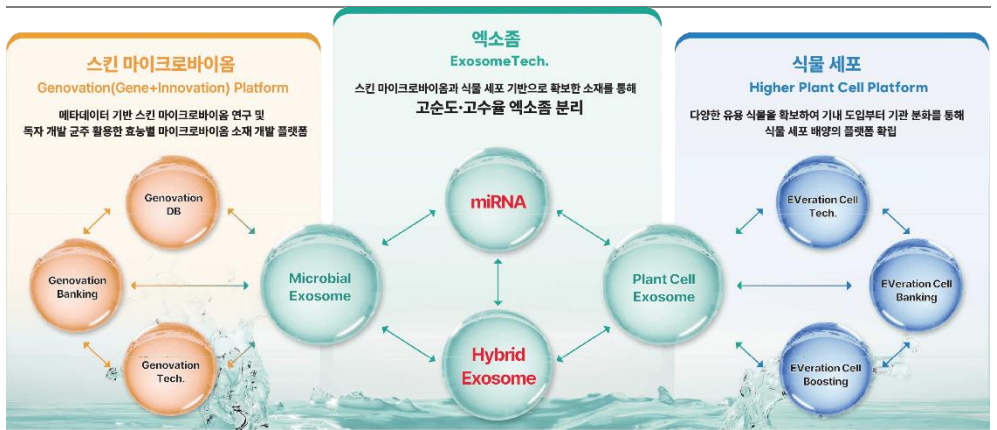
동사는 피부 개선 효과, 보습, 미백, 주름 개선 등 다양한 기능성에 대한 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제품 개발 및 마케팅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임상 데이터 확보 역량은 신규 소재의 효능 입증과 제품화 과정에서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며, 소재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고객사 락인 효과를 강화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사업 모델**



자료: 지에프씨생명과학,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핵심 기술: 융복합 바이오 소재 개발**



자료: 지에프씨생명과학,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1 바이오 기반 화장품 소재 및 메디컬 에스테틱 산업**

**바이오 화장품 소재 산업은  
기능성 프리미엄 화장품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세,  
최근에는 엑소좀 펩타이드 등  
고부가 소재가 스킨부스터 및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과 결합되며  
성장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

바이오 기반 화장품 소재 산업은 화장품의 기능성과 차별성을 결정하는 핵심산업으로, 최근 기능성 화장품과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의 성장에 따라 고부가 소재 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과거 화장품 소재 산업이 보습제, 계면활성제, 유화제, 방부제 등 범용 원료 공급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엑소좀, 펩타이드, 발효소재, 식물세포 유래 소재 등 생명과학 기반 원료가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의 핵심 차별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바이오 기반 화장품 소재 산업이 성장하는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소비자가 화장품을 선택할 때 브랜드 인지도 뿐 아니라 성분, 작용기전, 임상 결과를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둘째, 더마코스메틱과 프리미엄 스킨케어 시장이 확대되면서 피부 장벽, 진정, 항노화, 탄력, 재생 등 구체적 효능을 구현하는 원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 K-뷰티의 글로벌 확산으로 국내 화장품 브랜드와 ODM/OEM 기업의 해외 수출이 증가하면서, 차별화된 제품 기획을 가능하게 하는 국내 기능성 소재기업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시장 규모 측면에서도 화장품 소재 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Deep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화장품 원료 시장은 2024년 약 34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25년 약 360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약 477억달러 수준까지 연평균 약 5.8%의 성장세가 전망된다. 다른 조사에서도 2024년 약 359억달러에서 2030년 약 499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약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조사기관별 차이는 있으나 글로벌 화장품 원료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5%대 성장세가 예상된다. 특히 프리미엄·지속가능·다기능성 소재 수요 확대와 바이오 발효·미생물 합성·세포배양 기반 소재 개발이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바이오 기반 화장품 소재는 범용 원료와 달리 특정 효능과 과학적 스토리를 기반으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일반 화장품 원료가 제형 안정성, 사용감, 보존성 등을 담당한다면, 바이오 소재는 피부 개선 효과를 설명하는 핵심 성분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바이오 소재는 완제품 브랜드의 마케팅 포인트이자 제품 차별화 수단으로 기능하며, 소재기업 입장에서는 단가와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영역이다.

대표적인 바이오 기반 화장품 소재로는 마이크로바이옴, 엑소좀, 펩타이드, 발효소재, 식물세포 유래 소재 등이 있다. 이 중 마이크로바이옴과 엑소좀은 최근 프리미엄 스킨케어와 더마코스메틱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테고리다. 마이크로바이옴 소재는 피부 표면에 존재하는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을 조절해 피부 장벽 강화, 진정, 보습, 트러블 개선 등에 활용된다. 민감성 피부, 장벽 손상, 여드름성 피부 등 피부 고민이 세분화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제품은 더마코스메틱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스킨케어 제품 시장은 2024년 약 4.35억달러 규모로, 2025년 약 4.70억달러 규모에서 2030년 약 8.35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약 12.2%의 성장이 전망된다.

엑소솜은 세포가 분비하는 나노 크기의 세포외소포체로, 세포 간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물질이다. 화장품 및 피부미용 영역에서는 피부 재생, 진정, 탄력 개선, 항노화 등의 효능을 기대하는 차세대 바이오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엑소솜은 원료 유래, 분리·정제 방식, 순도, 안정성,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제품 경쟁력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어, 단순 원료 조달보다 공정기술과 분석기술의 중요성이 높다. 다만 엑소솜은 국가별 규제와 안전성 검증 수준에 따라 상업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향후 시장은 기술력과 품질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펩타이드와 발효소재 역시 바이오 기반 화장품 소재 산업의 주요 축이다.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결합된 생리활성 물질로, 주름 개선, 탄력, 피부 장벽, 미백 등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에 적용된다. 발효소재는 미생물 발효 과정을 통해 유효성분의 흡수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되며, 천연 유래 원료와 과학적 효능을 동시에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K-뷰티 제품 기획과 친화성이 높다. 식물세포 유래 소재는 식물 배양기술을 기반으로 희소 원료의 안정적 생산과 기능성 성분의 고순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 기반 화장품 소재 산업은 최근 스킨부스터와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스킨부스터는 피부 보습, 탄력, 광채, 재생, 피부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히알루론산, 펩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엑소솜 등 기능성 성분을 피부에 전달하는 제품군이다. 기존 화장품이 피부 표면에 도포되는 홈케어 제품이라면, 스킨부스터는 피부과·클리닉·메디컬 스파 등 전문 채널에서 사용되며 반복 시술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이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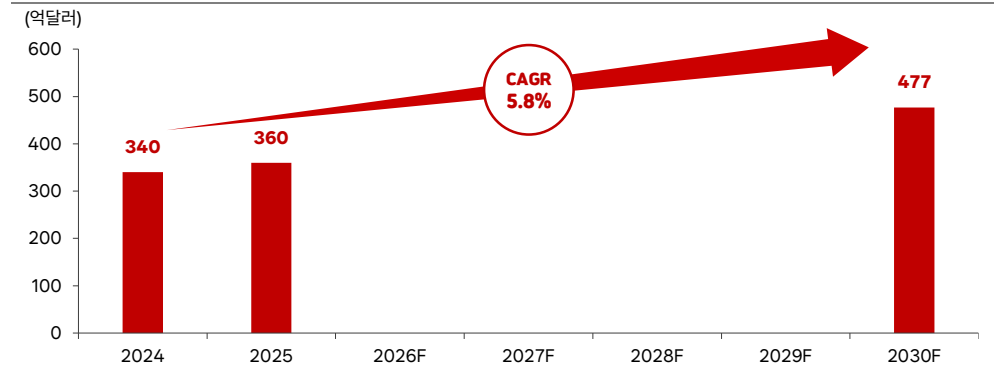
바이오 화장품 소재와 스킨부스터 시장의 연계성이 커지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스킨부스터 제품의 차별화는 결국 어떤 유효성분을 사용하고, 해당 성분의 효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 소비자 수요가 단순 보습이나 일시적 광채 개선을 넘어 피부 재생, 진정, 탄력 개선 등 기능성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엑소솜, 펩타이드, PDRN/PN, 성장인자 유사 소재 등 바이오 소재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셋째, 피부과와 에스테틱 채널에서는 레이저, 고주파, microneedling 등 시술 후 회복과 피부 개선을 보조하는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기능성 소재의 응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시장 규모 측면에서도 스킨부스터 시장은 화장품 원료 시장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Strategic Market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스킨부스터 시장은 2024년 약 15.4억달러 규모에서 2030년 약 30.1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약 11.8%의 성장이 전망된다(화장품 원료 시장은 5%대 성장 전망). 해당 시장은 히알루론산 기반 제품과 비히알루론산 기반 제품으로 구분되며, 피부과 클리닉, 메디컬 스파, 병원 등을 주요 수요처로 한다. 특히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항산화 성분, 펩타이드, 엑소솜 등 비히알루론산 기반 재생·바이오 스킨부스터가 차세대 카테고리 부상하고 있다.

스킨부스터의 성장은 메디컬 에스테틱 산업 성장과도 맞물려 있다. 메디컬 에스테틱은 피부과·성형외과·클리닉 등에서 제공하는 비수술 또는 최소침습 미용의료 서비스를 포괄하는 산업으로, 보툴리눔 독신, 필러, 스킨부스터, 레이저, 에너지 기반 장비, 체형관리 시술 등을 포함한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외모 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 비수술 시술 선호, 회복기간이 짧은 시술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서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관련 시장 중 메디컬 스파 시장은 2023년 약 186억달러에서 2030년 약 494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4~2030년 연평균 성장률은 약 15%로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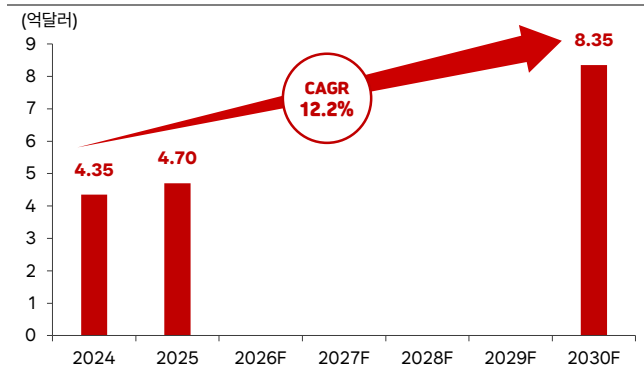
이러한 산업 변화는 바이오 소재기업에게 사업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화장품 소재기업은 과거 원료 공급자로서의 역할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기능성 소재 개발, 효능 검증, 제형화, 스킨부스터 등 응용 제품 개발까지 관여하는 기술 파트너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화장품 소재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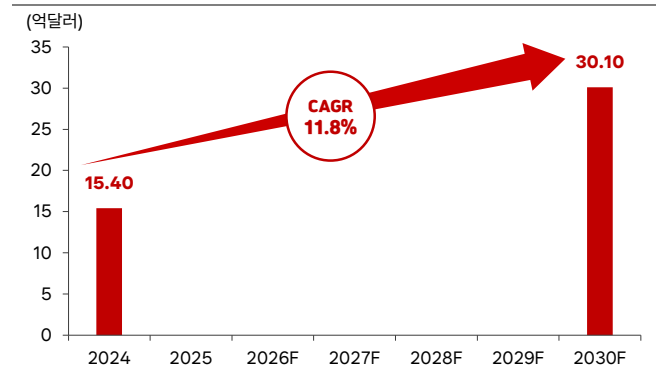
자료: Deep Market insight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스킨케어 시장



자료: Grand view research,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스킨부스터 시장



자료: Strategic market research,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화장품 바이오 소재 분야의 히든 챔피언**

**지에프씨생명과학은 K-뷰티  
밸류체인 내 고기능성 화장품  
소재 공급사로서 입지를 강화**

지에프씨생명과학은 식물세포, 스킨마이크로바이옴, 엑소솜, 바이오포몰레이팅 기술을 기반으로 화장품 바이오 소재를 개발·생산하는 기술형 소재기업이다. 동사의 경쟁력은 단순 원료 유통이 아니라,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기능성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고객사가 실제 화장품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상업화한다는 점에 있다. 화장품 시장이 성분, 효능, 임상 근거 중심으로 고도화되면서 완제품 브랜드와 ODM/OEM 기업은 차별화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소재기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동사는 식물세포·마이크로바이옴·엑소솜을 아우르는 소재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동사는 스킨마이크로바이옴, 식물세포, 엑소솜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메타데이터 기반 스킨마이크로바이옴 연구와 독자 개발 균주를 활용한 효능별 마이크로바이옴 소재 개발 플랫폼, 다양한 유용식물을 기반으로 한 Higher Plant Cell 플랫폼, 스킨마이크로바이옴과 식물세포 기반 소재를 활용한 고순도·고수율 엑소솜 분리 기술이 동사의 핵심 기술이다. 동사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균주·식물세포·엑소솜을 연결한 융복합 바이오 소재 플랫폼으로 화장품 소재 개발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스킨마이크로바이옴은 동사의 중장기 성장성을 높이는 차세대 소재 영역이다. 스킨마이크로바이옴은 피부에 존재하는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을 활용해 피부 장벽, 진정, 보습, 트러블 개선 등의 효능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동사는 약 2,000여 종의 미생물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천연 유효성분의 기능을 검증하고, 차세대 유전자 분석(NGS)을 활용해 피부 상재균 조절과 스킨마이크로바이옴 밸런싱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민감성 피부, 장벽 손상, 더마코스메틱 수요가 확대되는 환경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소재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의 차별화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요 제품 레퍼런스로는 스킨수티컬즈, 닥터자르트 시카페어, ORIGINS GINZING, 달바 아로마틱 세럼, 센텔리안24, 더후 환유라인, Filorga Scrub & Mask 등이 있으며, 동사의 소재는 국내외 주요 스킨케어 제품군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엑소솜은 동사의 고부가 소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핵심 영역이다. 엑소솜은 세포 간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나노 크기의 세포외소포체로, 화장품 분야에서는 피부 개선 효능과 유효성분 전달 기능을 기반으로 프리미엄 소재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동사는 LED 광원을 이용한 식물세포 증식 및 유효성분 증대 기술인 LED SPHERE™, 소재별 특성에 맞춘 엑소솜 추출 기술인 Hybrid-Exotech™, NTA 분석과 막단백질 마커, miRNA 기반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엑소솜 검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엑소솜은 원료 출처, 분리·정제 기술, 순도, 안정성, 품질관리 역량이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기술 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재군으로 평가되며, 동사는 엑소솜 생산·분리·검증 기술을 바탕으로 관련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엑소솜은 스킨케어, 더마, 스킨부스터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 가능한 상업화 원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동사는 자체 배양 식물세포를 기반으로 원료 안정성을 확보하고 맞춤형 공정을 통해 수율과 순도를 관리하며 엑소솜 기반 소재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식물세포 소재는 동사의 장기 연구개발 역량을 보여주는 기반 기술이다. 식물세포 기반 화장품 소재는 식물 유래 유효 성분을 배양·추출해 피부 효능을 구현하는 원료로, 희소 식물자원의 기능성 성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사는 다양한 유용식물의 기내 도입과 기관 분화를 통해 식물세포 배양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엑소좀 소재 개발과 연결하고 있다. 식물세포 플랫폼은 단순 추출물 대비 원료 표준화, 안정적 생산, 기능성 성분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며, 고기능성·프리미엄 화장품 소재 수요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는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와 제형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완제품 브랜드사는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차별화된 성분과 효능 스토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ODM/OEM 기업은 빠른 제품 개발을 위해 검증된 기능성 소재 파트너를 확보해야 한다. 동사는 스킨마이크로바이옴과 엑소좀 소재의 실제 제품 적용 레퍼런스, 식물세포 기반 소재 개발 역량, 다수의 특허와 연구인력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K-뷰티 밸류체인 내 고기능성 화장품 바이오 소재 공급사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기업으로 판단된다.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적용된 주요 레퍼런스																							
<p><b>GFC의 기술 경쟁력</b></p> <p><b>스킨 마이크로바이옴 밸런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세대 유전자 분석(NGS) 기반 상재군 조절을 통한 피부 건강 유지</li> <li>기능성 마이크로바이옴 소재 확보</li> </ul> <p><b>유효 효능 검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천연 유효 성분의 기능 검증</li> <li>약 2,000여 종 미생물 데이터 라이브러리화</li> </ul> <p><b>기존 발효 기술과의 차별점</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기존</td> <td>GFC Life Science</td> </tr> <tr> <td><b>기술 요약</b> 발효물의 효능 증대는 있으나, 어떤 물질이 작용하는지 규명 부족</td> <td><b>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발효 소재의 유효 성분 규명</b></td> </tr> <tr> <td><b>특징</b> 효능 표준화 어려움 → 품질 유지 및 신뢰성 저하</td> <td><b>유효 성분 기작 및 후보 물질 도출 → 후속 효능 검증 연구 지속</b></td> </tr> </table>	기존	GFC Life Science	<b>기술 요약</b> 발효물의 효능 증대는 있으나, 어떤 물질이 작용하는지 규명 부족	<b>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발효 소재의 유효 성분 규명</b>	<b>특징</b> 효능 표준화 어려움 → 품질 유지 및 신뢰성 저하	<b>유효 성분 기작 및 후보 물질 도출 → 후속 효능 검증 연구 지속</b>	<p><b>주요 제품</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스킨수티컬즈</td> <td> 사카페이</td> <td> Filorga Scrub &amp; Mask</td> <td> 센텔리안 24</td> </tr> <tr> <td> ORIGINS GINZING</td> <td> 아로마틱 세럼</td> <td> 후시드 크림</td> <td> 더후 환유라인</td> </tr> </table> <p><b>주요 고객사</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able>	 스킨수티컬즈	 사카페이	 Filorga Scrub & Mask	 센텔리안 24	 ORIGINS GINZING	 아로마틱 세럼	 후시드 크림	 더후 환유라인									
기존	GFC Life Science																							
<b>기술 요약</b> 발효물의 효능 증대는 있으나, 어떤 물질이 작용하는지 규명 부족	<b>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발효 소재의 유효 성분 규명</b>																							
<b>특징</b> 효능 표준화 어려움 → 품질 유지 및 신뢰성 저하	<b>유효 성분 기작 및 후보 물질 도출 → 후속 효능 검증 연구 지속</b>																							
 스킨수티컬즈	 사카페이	 Filorga Scrub & Mask	 센텔리안 24																					
 ORIGINS GINZING	 아로마틱 세럼	 후시드 크림	 더후 환유라인																					
																								
																								
																								

자료: 지에프씨생명과학,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엑소좀 기술 경쟁력


### 엑소좀 (Exosome Tech.)

엑소좀 부스팅 기술 LED SPHERE™	엑소좀 분리 기술 Hybrid-Exotech™	엑소좀 검증 기술
<p>LED 광원을 이용한 최적의 식물 세포 증식 및 유효성분 증대 기술</p> <p>화학물질 없이 안전하고 경제적인 배양 방식</p>	<p>식물별 특성에 맞춤 엑소좀 추출 기술</p> <p>각 기술을 조합하여 엑소좀 수율 및 순도 조절</p> <p><small>* UC(초관심분리법), TFF(정선흐름여과법), FTI(냉동-해동)</small></p>	<p>(기존) NTA 분석법 입자 크기-분포만 측정하여 정밀 검증 한계</p> <p>(GFC) NTA 분석 + 막 단백질 마커(TET8 등)</p> <p>(GFC) miRNA 기반 바이오마커 이용한 검증</p>
<p>엑소좀 수율 증가</p> <p>Magenta LED의 광조건</p> <p>유효 성분 증대</p> <p>생산 원가 절감</p>	<p>자체 배양 식물세포 사용하여 원료 안정성 확보</p> <p>LED SPHERE™ 병행하여 엑소좀 수율 향상</p> <p>맞춤형 공정으로 고품질-저비용 바이오 소재 수득</p>	<p>엑소좀의 정제성 명확화</p> <p>표준화된 품질 관리 및 제조 공정 확립</p> <p>식물 유래 엑소좀의 신뢰성과 시장성 강화</p>


“맞춤형 공정으로 고품질-저비용 바이오 소재 수득 및 표준화된 품질 관리로 신뢰성 확보”

#### 엑소좀 원료가 적용된 주요 레퍼런스


자사 브랜드




GFC CELL EXO




EXO-V




엑소티지




엘리베스CV엑소좀




엑소리젠



네오스텝 플러스



루미에메



히알루 에너지 앰플

자료: 지에프씨생명과학,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수출 확대와 스킨부스터를 통한 글로벌 성장 기반 강화

**글로벌 고객사향 신규 소재 공급,  
스킨부스터 해외 진출 바탕으로  
글로벌 기능성 소재 응용제품  
기업으로 성장 기반 확대**

지에프씨생명과학은 기존 내수 중심의 화장품 바이오 소재 사업을 기반으로 수출 매출을 확대(수출 비중 2024년 5.3%, 2025년 11.3%, 1Q26 16.7%)하고 있으며, 스킨부스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동사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 및 ODM/OEM 고객사를 대상으로 바이오 소재를 공급해왔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고객사향 신규 개발 소재 공급, 스킨부스터 해외 진출, 지역별 인증 및 유통 파트너 확보를 통해 성장 범위를 해외 시장으로 넓히고 있다. K-뷰티 완제품 수출이 확대되면서 완제품뿐 아니라 기능성 원료, 바이오 소재, 스킨부스터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도 동반 증가하고 있어, 동사의 수출 확대는 단순 매출처 다변화가 아니라 성장 시장 진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출 확대의 핵심은 글로벌 고객사향 신규 소재 공급과 스킨부스터 판매 증가다. 동사는 2025년 12월부터 글로벌 고객사향 신규 개발 소재의 초두물량 공급을 시작했으며, 2026년에는 해당 물량 확대와 함께 고객 그룹사 내 소재 채택 브랜드가 추가되며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기존 소재사업이 국내 고객사 중심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했다면, 글로벌 고객사향 소재 공급은 동일한 기술 플랫폼을 해외 브랜드 및 유통망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는 제품 차별화를 위해 독자 성분, 효능 스토리, 임상 데이터가 결합된 기능성 원료를 선호하는 만큼, 동사의 바이오 소재 포트폴리오는 해외 고객사 대응력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

스킨부스터는 동사의 글로벌 확장 전략에서 가장 가시성이 높은 제품군이다. 스킨부스터는 고농도 유효성분을 피부에 전달해 피부 질감, 탄력, 회복 등을 개선하는 제품군으로, 화장품 원료보다 제품 단가와 부가가치가 높고 병·의원, 에스테틱, 리테일 등 다양한 채널로 확장 가능하다. 동사는 자체 생산 엑소좀을 핵심 소재로 한 차세대 스킨부스터 제품군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식물 유래 엑소좀 스킨부스터가 규제 부담을 낮추고 해외 허가 및 위생등록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해외 시장별 진입 준비도 진행 중이다. 스킨부스터 자사브랜드인 GFCCELL EXO 라인업은 중동 및 서남아시아 시장에 입점했으며,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7개국과 인도, 파키스탄 내 주력 스킨부스터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25년 8월 GFCCELL EXO VITAL/SCALP 위생허가 인증 완료, 일본에서는 GFCCELL EXO 제품 인증을 완료, 유럽은 2025년 7월 GFCCELL EXO 라인별 CPNP 인증 완료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남미와 미국 시장의 경우 전시회 참여와 독점 에이전트 구축을 통해 지역별 유통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동사의 스킨부스터 전략은 단순 제품 수출이 아니라, 소재 기술의 해외 상업화 모델로 판단된다. 기존 원료사업은 고객사의 완제품 개발 과정에 원료를 공급하는 구조인 반면, 스킨부스터는 동사가 자체 생산한 엑소솜 소재를 완제품 또는 준완제품 형태로 공급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동일한 엑소솜-바이오포몰레이팅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고객군과 판매 채널이 넓어지고, 매출 단가와 수익성 개선 여지도 커진다. 특히 전문가용 제품, 앰플, 더마홈케어 등 다양한 제형으로 확장 가능한 점은 병원 채널과 리테일 채널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해외 확장을 위한 품질 및 인허가 기반도 보강되고 있다. 동사는 2020년 바이오 소재공장을 안성에 완공했고, 에스티로더 품질 심사를 통과했으며, 2023년 ISO 22716 인증, 2024년 의료기기 제조소 준공, 2025년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획득, 유럽화장품 CPNP 인증, ISO 13485 인증, 창상피복재 의료기기 제조 인증 등을 진행하고 있다. 화장품 소재와 스킨부스터 제품은 해외 고객사 확보 과정에서 품질관리 체계와 인허가 대응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 및 제조 인프라는 수출 확대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에프씨생명과학의 글로벌 성장성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다. 글로벌 고객사향 신규 개발 소재의 반복 발주 여부, GFCCELL EXO 라인업의 지역별 판매 확대, 아시아-중동-남미 등 신규 지역에서의 유통망 구축이 핵심 확인 포인트다. 해외 매출은 초기에는 인증, 유통 파트너, 고객사 제품 출시 일정에 따라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으나, 제품 적용과 유통 채널이 안정화될 경우 반복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동사는 소재 기술과 스킨부스터 제품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K-뷰티 후방 소재기업에서 글로벌 기능성 바이오 소재 및 응용 제품 기업으로 확장이 기대된다.

스킨부스터

스킨부스터

- ✔ 고농도 유효성분을 피부에 직접 전달하는 시술/제품
- ✔ 피부 질감·탄력 개선, 낮은 부작용, 맞춤 적용 가능

차세대 스킨부스터의 중심 = 엑소좀 (Exosome)

- ✔ miRNA 기반 ECM 재생 및 조직 회복
- ✔ 부작용 부담이 낮아 반복 시술 확장 유리
- ✔ Cell-free 기반 → 자연 유래 원료로 안전성과 규제 진입 부담 완화
- ✔ 해외 허가/위생등록 대응 속도 빠름 → 확장성 우위
- ✔ 생산 CAPA 확장 용이 → OEM/ODM-B2B 확장 구조 확보

GFC의 식물 유래 엑소좀 스킨부스터

규제 리스크 최소 (비인체·식물유래 엑소좀)

인체-ECM 대비 규제 Exposure 최소화  
정기 확장·국가별 승인 리스크 낮고 글로벌 진입 유리

균일한 품질 + 대량 생산 역량

정량화·스케일업 가능 → 가격·마진 경쟁력  
OEM/ODM 확장 + 고마진 구조

다형태 스킨부스터 구현 및 시장 확장성

주사형·애플·더마·홈케어까지 멀티 제형 전개  
병원 + 리테일 동시 진입 → 시장 점유 속도 가속

" 우리의 전략은 Regulation-Free Growth Zone "

제품개발 및  
출시계획

소재명(가칭)

miRNA408  
Plant-Exo 내의 miRNA

miRNA2478  
Milk-Exo 내의 miRNA

소재 스크리닝

안정성 및 효능 시험

제품화

엑소좀 스킨부스터

자료: 지에프씨생명과학,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3** **완제품 B2C 확장을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

**스킨부스터, 의료가기,  
자체 더마 브랜드 fmk를 통해  
고부가 완제품 B2C 기반으로  
수익구조 다변화를 추진**

지에프씨생명과학은 기존 B2B 소재 공급 중심의 사업모델에서 스킨부스터, 의료가기, 자체 더마 브랜드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수익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사는 식물세포, 스킨마이크로바이옴, 엑소좀 등 화장품 바이오 소재를 고객사에 공급하는 소재기업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에는 자체 소재 기술을 완제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는 동사가 보유한 바이오 소재 기술을 최종 제품으로 연결해 매출 단가와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판단된다.

가장 먼저 가시화된 완제품 확장 영역은 스킨부스터다. 동사는 바이오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2022년부터 스킨부스터 제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으며, 완제품, 누드바이알, ODM 등 다양한 형태의 스킨부스터 공급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2026년 1분기 기준 스킨부스터 매출은 약 7.2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4.2% 수준이며, 이 중 수출 매출은 약 4.2억원으로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스킨부스터는 동사의 소재 기술을 고부가 응용 제품으로 전환하는 핵심 축이다. 기존 소재사업은 고객사의 완제품 개발 과정에 원료를 공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객사 제품 출시 일정, 채택 여부, 주문 규모에 따라 매출이 결정된다. 반면 스킨부스터는 동사가 자체 기술을 활용해 완제품 또는 완제품에 가까운 형태로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군이다. 제품 단가와 부가가치가 기존 범용 원료보다 높고, 피부과·에스테틱·해외 유통 채널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엑소좀 소재 스킨부스터가 차세대 스킨부스터로 주목받는 가운데, 동사는 엑소좀 스킨부스터를 중심으로 피부 질감·탄력 개선, 반복 사용 가능성, 다양한 제형 확장성을 기반으로 기존 소재사업 대비 고부가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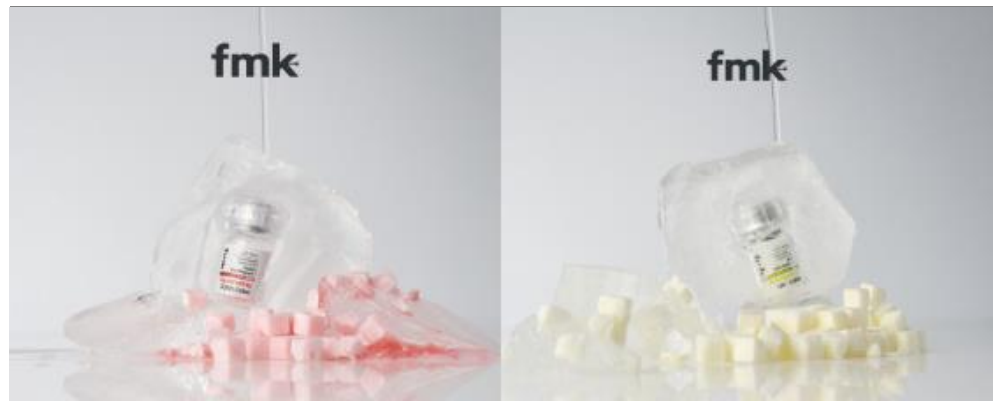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14

의료기기 영역 확장도 완제품 사업 고도화의 중요한 기반이다. 동사는 바이오소재,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원료뿐 아니라 의료기기 제조·판매까지 사업 목적을 확장하고 있으며,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의료기기 제조 인프라와 인허가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26년 1분기 말 기준 동사는 의료기기 제조소를 완공했고, 2등급 의료기기인 Votacell MD 크림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인증을 획득하였다. 이는 동사가 단순 화장품 소재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더마코스메틱과 메디컬 에스테틱 사이의 고부가 제품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생산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B2C 사업은 자체 브랜드 'fmk'를 통해 전개하고 있다. fmk는 동사가 보유한 엑소좀, 펩타이드, 바이오포물레이팅 등 기능성 소재 역량을 기반으로 한 고기능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성 제고와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사는 2026년 3월 국내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fmk를 론칭했으며, 향후 오프라인 채널로 판매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fmk의 전략적 의미는 단순 화장품 브랜드 출시보다 소재 기술의 내재화와 소비자 직접 확보에 있다. 기존 B2B 사업에서는 동사의 소재가 고객사 제품에 포함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와 제품 피드백이 고객사에 귀속되는 구조였다. 반면 자체 브랜드는 동사가 개발한 소재와 제형 기술을 직접 제품 콘셉트로 구현하고, 소비자 반응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 방향을 고도화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소재 영업에서도 레퍼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B2B와 B2C 간의 기술·마케팅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향후 온라인 채널 판매 추이, 오프라인 채널 입점 여부, 스킨부스터·더마 제품군과의 연계성이 확인될 경우 B2C 사업은 동사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고기능 더마 브랜드 fmk 출시**



자료: 지에프씨생명과학,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실적 추이 및 전망

### 2025년 실적 추이

지에프씨생명과학의 2025년 실적은 매출액 177억원(YoY +5.4%), 영업이익 4억원(YoY -77.3%), 영업이익률 2.2%(YoY 7.9%p 하락), 당기순이익 6억원(YoY 흑자전환)이다. 매출액은 소재사업부문의 안정적인 매출 발생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코스닥 이전상장 관련 비용, 신사업 추진 비용, 연구개발 투자비용 등이 반영되며 영업수익성은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하였다.

사업부문별로는 소재사업부문 매출액이 2024년 128억원에서 2025년 137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였다. K-뷰티 시장 성장과 함께 국내외 고객사향 화장품 원료 매출이 꾸준히 발생했으며, 신규 개발 소재의 공급 확대도 외형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5년 12월부터 글로벌 고객사향 신규 개발 소재의 초두물량 공급이 시작됨에 따라 2026년에도 소재사업 성장의 높은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상사업부문 매출액은 2024년 40억원에서 2025년 41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제품 믹스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 스킨마이크로바이옴, 바이오포물레이팅, 엑소좀, 스킨부스터 등 고부가 화장품 소재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매출총이익률은 2024년 46.9%에서 2025년 48.0%로 전년 대비 1.1%p 개선되었다. 다만 판매관리비율은 코스닥 이전상장 관련 일회성 비용과 신사업-연구개발 비용 집행의 영향으로 2024년 36.9%에서 2025년 45.8%로 8.9%p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024년 10.1%에서 2025년 2.2%로 하락하였다.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하였다. 이는 2024년 상환전환우선주 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대규모로 반영되었던 기저효과와, 보통주 전환 완료 이후 관련 평가손실 부담이 해소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영업이익은 일회성 비용 부담으로 감소했으나, 금융비용 측면의 비경상 손실이 완화되면서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되었다.

### 2026년 실적 전망

2026년 실적은 매출액 247억원(YoY +39.2%), 영업이익 32억원(YoY +731.8%), 영업이익률 13.0%(YoY 10.8%p 개선), 당기순이익 38억원(YoY +584.4%)을 전망한다. 2026년은 신규 프리미엄 소재 공급, 글로벌 고객사향 물량 확대, 스킨부스터 수출 성장, 판매비 정상화가 동시에 반영되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함께 나타나는 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1분기 실적은 매출액 50억원(YoY +12.2%), 영업이익 5억원(YoY +16.7%), 당기순이익 5억원(YoY +59.9%)을 기록하였다. 영업이익률은 약 9.1%로 2025년 연간 2.2% 대비 크게 개선되었으며, 코스닥 이전상장 관련 일회성 비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수익성이 정상화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사업부문별로는 소재사업부문 매출액이 39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78%를 차지하며 핵심 사업부로서의 비중을 유지했고, 임상사업부문은 11억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스킨부스터 매출은 7억원 수준으로, 이 중 수출 매출 비중이 높게 나타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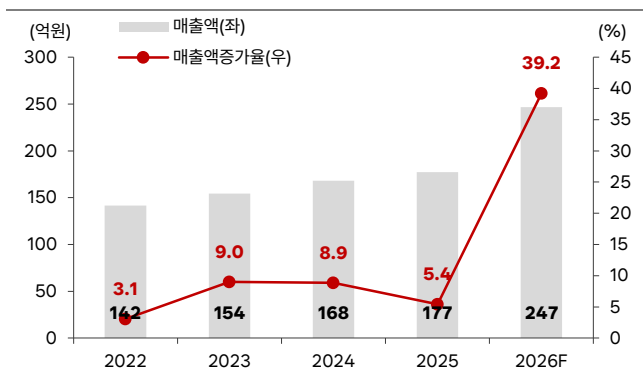
소재사업부문은 2026년 실적 성장의 핵심 축이다. 2026년에는 약 20억원 규모의 국내 대기업향 신규 프리미엄 소재 공급, 2025년 12월 초두물량 공급이 시작된 글로벌 고객사향 신규 개발 소재의 공급 확대, 국내 인디 브랜드향 원료 공급계약 증가가 매출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또한 스킨부스터는 아시아, 남미, 중동 등 신규 지역 진출 확대를 바탕으로 고성장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소재사업부문 매출액은 2025년 137억원에서 2026년 약 202억원으로 전년 대비 47.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상사업부문은 화장품 효능 검증 수요 확대와 해외 시험 수주를 기반으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 동사는 효과 검증 중심의 화장품 인체적용시험법을 경쟁력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이탈리아 등 해외 시험 수주 확보를 통해 임상사업부문 매출도 10%대 성장이 기대된다. 임상사업은 소재사업 대비 고성장 사업은 아니지만, 고객사의 제품 개발 과정에 관여하면서 소재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높이는 보완적 사업부로 기능할 수 있다.

신규 B2C 사업도 2026년 이후 중장기 성장 옵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사는 2026년 3월 고기능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 fmk를 출시했으며, 자사몰과 네이버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하였다.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단기 실적 기여도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자체 바이오 소재 기술을 완제품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매출원 다변화와 브랜드 자산 축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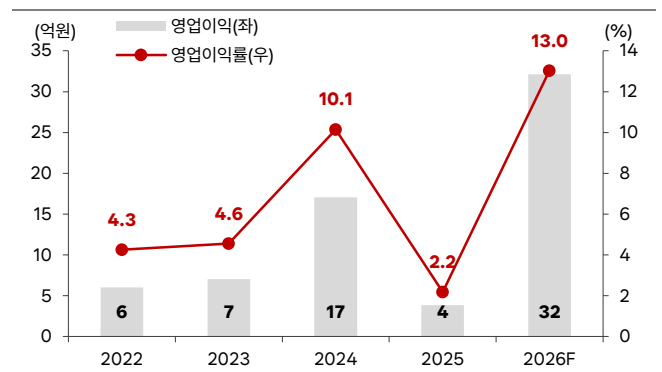
수익성 측면에서는 매출총이익률 개선과 판매관리비율 정상화가 동시에 기대된다. 프리미엄 소재 공급 확대와 스킨부스터 매출 증가로 제품 믹스가 개선되면서 2026년에도 매출원가율 하락에 따른 매출총이익률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25년에 반영된 코스닥 이전상장 관련 일회성 비용이 소멸하고, 외형 성장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가 나타나면서 판매관리비율은 평년 수준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6년 영업이익률은 13.0%로 전년 대비 10.8%p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액 추이



자료: 지에프씨생명과학,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영업이익 추이



자료: 지에프씨생명과학,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2022	2023	2024	2025	2026F
<b>매출액</b>	<b>142</b>	<b>154</b>	<b>168</b>	<b>177</b>	<b>247</b>
증가율 (%)	3.1	9.0	8.9	5.4	39.2
소재사업부문	102	111	128	137	202
임상사업부문	39	42	40	41	45
<b>매출원가</b>	<b>80</b>	<b>86</b>	<b>89</b>	<b>92</b>	<b>125</b>
매출원가율 (%)	56.3	55.8	53.0	52.0	50.6
<b>매출총이익</b>	<b>62</b>	<b>68</b>	<b>79</b>	<b>85</b>	<b>121</b>
매출총이익률 (%)	43.8	44.1	46.9	48.0	49.2
<b>영업이익</b>	<b>6</b>	<b>7</b>	<b>17</b>	<b>4</b>	<b>32</b>
영업이익률 (%)	4.3	4.6	10.1	2.2	13.0
<b>세전계속사업이익</b>	<b>2</b>	<b>22</b>	<b>-57</b>	<b>1</b>	<b>31</b>
<b>당기순이익</b>	<b>3</b>	<b>21</b>	<b>-59</b>	<b>6</b>	<b>38</b>

자료: 지에프씨생명과학,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Valuation

### 1 현 주가 밸류에이션은 화장품 바이오 소재 기업의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수준

현 주가 밸류에이션은  
2026년 예상실적 기준  
PER 10.2배, PBR 1.4배,  
PSR 1.6배 수준

2026년 예상실적 매출액 247억원, 영업이익 32억원, 당기순이익 38억원 기준 지에프씨생명과학의 현 주가 밸류에이션은 PER 10.2배, PBR 1.4배, PSR 1.6배 수준으로, 2026년 실적 개선 가능성을 감안하면 동종 화장품 소재 기업 대비 주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지 않은 구간으로 판단된다. 당사는 2025년 코스닥 이전상장 관련 일회성 비용, 신사업 투자비용 등으로 영업이익률이 2.2%까지 하락했으나, 2026년에는 신규 프리미엄 소재 공급, 스킨부스터 수출 확대, 판매비 정상화에 힘입어 영업이익률이 13.0%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밸류에이션 판단에서는 2025년 실적 기준보다 2026년 예상실적 기준의 수익성 정상화 여부가 더 중요한 변수로 판단된다.

동사의 비교대상기업으로는 현대바이오랜드, 대봉엘에스, 바이오에프디엔씨, 제이투케이바이오를 선정하였다. 이들 기업은 화장품 소재, 천연물-바이오 소재, 기능성 원료, 인체적용 및 응용 제품 영역에서 지에프씨생명과학과 사업적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바이오랜드는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소재를 생산하는 소재기업이고, 대봉엘에스는 화장품 소재와 원료의약품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바이오에프디엔씨는 식물세포 플랫폼 기반 바이오 소재 기업으로 동사의 식물세포-엑소좀 사업과 가장 유사성이 높으며, 제이투케이바이오는 화장품 원료 및 소재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기업이다.

2025년 실적 기준 동사의 PER은 123.8배로 높게 나타나지만, 이는 2025년 영업이익이 코스닥 이전상장 관련 일회성 비용과 신사업 투자비용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축소된 데 따른 결과다. 2026년 예상실적 기준 PER은 10.2배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5년 기준 주요 비교기업인 대봉엘에스 12.8배, 바이오에프디엔씨 20.6배, 제이투케이바이오 18.8배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바이오에프디엔씨를 제외하면 비교대상기업들의 2026년 실적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는 바, 2025년 밸류에이션을 참고로 하였음을 밝힌다.) 특히 동사의 2026년 예상 매출액 증가율은 39.2%, 영업이익 증가율은 731.8%로 추정되어, 실적 회복 구간에 진입하는 기업임을 감안하면 PER 기준 밸류에이션 매력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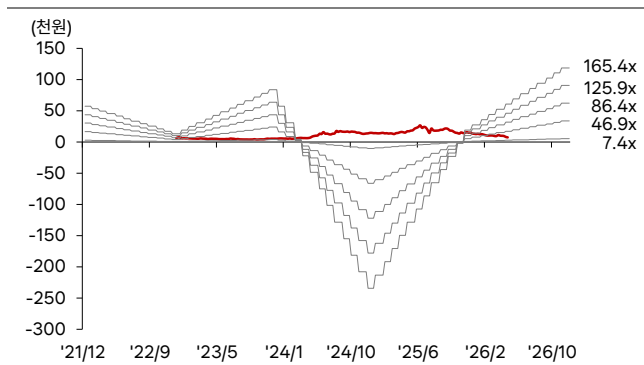
PBR 기준으로도 동사의 2026년 예상 PBR은 1.4배 수준이다. 이는 2025년 기준 현대바이오랜드 1.0배, 대봉엘에스 0.9배보다는 높지만, 바이오에프디엔씨 1.9배, 제이투케이바이오 1.5배 대비로는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다. 동사의 2026년 예상 ROE는 14.8%로 비교기업 중 수익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바이오에프디엔씨의 2026년 예상 ROE가 9.4%, PBR이 1.3배인 점을 감안하면, 당사는 ROE 대비 PBR 측면에서도 과도한 프리미엄이 부여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여부는 2026년 실적 회복의 가시성에 달려 있다. 2025년 실적은 일회성 비용과 신사업 투자비용으로 수익성이 훼손되었으나, 2026년에는 국내 대기업향 프리미엄 소재 공급, 글로벌 고객사향 신규 개발 소재 매출 확대, 스킨부스터 수출 증가, fmk 브랜드 출시를 통한 완제품 사업 확장 등이 실적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2026년 1분기 실적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2025년 연간 대비

개선된 점은 연간 실적 회복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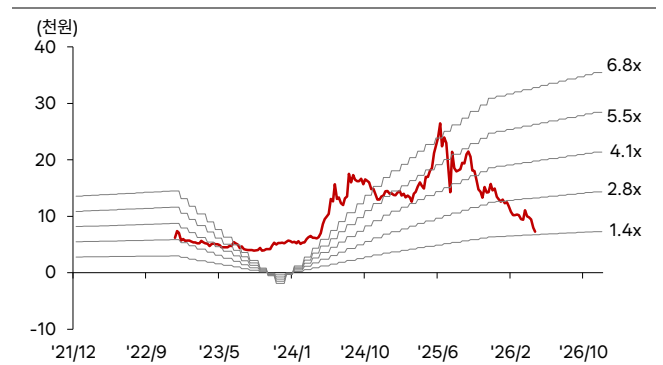
향후 실적 전망의 핵심은 소재사업부문의 매출 성장률과 스킨부스터 수출 확대 속도다. 동사가 2026년 예상 수준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달성할 경우, 현재의 PER 10배 초반, PBR 1배 중반 밸류에이션은 화장품 바이오 소재 기업으로서의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규 소재 공급 확대와 B2C·완제품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분기별 매출 성장 지속성 및 판관비 통제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PER 밴드 차트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PBR 밴드 차트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동종기업 비교

(단위: 원, 억원, %, 배)

	지에프씨생명과학	현대바이오랜드	대봉엘에스	바이오에프디엔씨	제이투케이바이오	
주가(원) 2026년 5월 18일 종가 기준	8,300	4,110	10,030	11,700	9,390	
시가총액(억원)	440	1,233	1,112	1,017	549	
자산총계(억원)	2023	188	1,841	1,949	628	220
	2024	201	1,947	2,387	673	360
	2025	338	1,669	2,650	735	381
	2026F	385	N/A	N/A	815	N/A
자본총계(억원)	2023	-12	1,360	1,532	586	178
	2024	109	1,380	1,640	631	313
	2025	238	1,361	1,749	698	338
	2026F	276	N/A	N/A	766	N/A
매출액(억원)	2023	154	967	876	156	285
	2024	168	1,195	940	161	331
	2025	177	1,305	1,021	192	330
	2026F	247	N/A	N/A	201	N/A
영업이익(억원)	2023	7	135	38	50	56
	2024	17	164	91	49	36
	2025	4	127	73	63	29
	2026F	32	N/A	N/A	69	N/A
영업이익률(%)	2023	4.6	13.9	4.3	32.3	19.7
	2024	10.1	13.7	9.6	30.2	10.9
	2025	2.2	9.7	7.2	32.6	8.9
	2026F	13.0	N/A	N/A	34.3	N/A
지배주주순이익(억원)	2023	21	81	42	56	48
	2024	-59	57	73	45	-17
	2025	6	3	101	67	27
	2026F	38	N/A	N/A	69	N/A
PER(배)	2023	10.5	18.6	24.3	22.0	N/A
	2024	N/A	23.8	20.3	26.7	N/A
	2025	123.8	510.1	12.8	20.6	18.8
	2026F	10.2	N/A	N/A	14.7	N/A
PBR(배)	2023	N/A	1.1	0.8	2.1	N/A
	2024	5.9	1.0	1.1	1.9	1.7
	2025	3.1	1.0	0.9	1.9	1.5
	2026F	1.4	N/A	N/A	1.3	N/A
ROE(%)	2023	54.6	6.1	3.5	10.0	33.8
	2024	-122.2	4.2	5.8	7.4	-6.7
	2025	3.2	0.2	7.4	10.0	8.2
	2026F	14.8	N/A	N/A	9.4	N/A
PSR(배)	2023	1.4	1.6	1.2	7.9	N/A
	2024	3.6	1.1	1.6	7.5	1.6
	2025	3.9	1.0	1.3	7.2	1.5
	2026F	1.6	N/A	N/A	5.1	N/A

주: 동종기업(바이오에프디엔씨)의 2026년 예상실적은 컨센서스 기준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리스크 요인

### ■ 신규 소재 공급 확대 지연 가능성

고객사 제품 출시 일정이나  
반복 발주 규모에 따른  
실적 달성 시점 지연 여부

2026년 실적 전망의 핵심 변수는 신규 프리미엄 소재와 스킨부스터 매출 확대가 예상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다. 동사의 2026년 실적은 매출액 247억원(YoY +39.2%), 영업이익 32억원(YoY +731.8%)으로 큰 폭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대기업형 신규 프리미엄 소재 공급, 글로벌 고객사향 신규 개발 소재 매출 확대, 스킨부스터 수출 증가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고객사의 제품 출시 일정이 지연되거나, 신규 소재의 초도 공급 이후 반복 발주 규모가 예상보다 작을 경우 매출 성장률이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화장품 소재사업은 고객사 제품 기획, 출시 시점, 재고 정책, 마케팅 성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기 실적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동사는 특정 단일 소재나 고객사에 의존하기보다 식물세포, 스킨마이크로바이옴, 엑소좀, 바이오포몰레이팅, 스킨부스터 등으로 제품군을 다변화하며 공급 지연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다. 또한 2026년 1분기 실적에서 소재사업부문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78%를 유지했고, 스킨부스터 수출 매출도 확인되었다는 점은 신규 사업 방향성이 초기 단계에서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실적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2025년 12월부터 시작된 글로벌 고객사향 신규 개발 소재 공급이 2026년 분기별로 확대되는지, 스킨부스터 수출 지역과 고객사가 추가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B2C 사업 초기 투자비 부담 가능성

브랜드 사업 관련, 초기  
마케팅비와 유통비 집행으로  
단기 수익성 개선속도 제한 가능성

fmk 브랜드를 통한 B2C 사업 확장은 동사의 수익구조 다변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는 마케팅비와 유통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B2C 화장품 사업은 제품력뿐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 온라인 광고 효율, 유통채널 확보, 소비자 재구매율이 실적을 좌우한다. 따라서 초기 매출 확대 속도가 기대보다 느리거나, 브랜드 인지도 확보를 위해 광고·프로모션 비용이 크게 집행될 경우 판관비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2026년 실적 전망은 2025년에 발생한 코스닥 이전상장 관련 일회성 비용 소멸과 판관비를 정상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B2C 사업 관련 비용 집행 규모는 영업이익률 개선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다만 동사의 B2C 사업은 기존 소재사업과 별개로 새롭게 출발하는 단순 브랜드 사업이라기보다, 자체 바이오 소재 기술을 완제품으로 확장하는 성격이 강하다. fmk는 동사가 보유한 엑소좀, 펩타이드, 바이오포몰레이팅 등 기능성 소재 역량을 활용한 고기능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로, 기존 R&D 및 원료 개발 역량을 제품 차별화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초기에는 자사몰과 네이버 등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어, 대규모 오프라인 유통망 구축에 따른 고정비 부담은 제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비용 집행 속도를 점검해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B2C 사업이 소재 기술의 소비자 접점 확대와 브랜드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142	154	168	177	247
증가율(%)	3.1	9.0	8.9	5.4	39.2
매출원가	80	86	89	92	125
매출원가율(%)	56.3	55.8	53.0	52.0	50.6
매출총이익	62	68	79	85	121
매출이익률(%)	43.8	44.1	46.9	48.0	49.2
판매관리비	56	61	62	81	89
판매비율(%)	39.4	39.6	36.9	45.8	36.0
EBITDA	16	23	33	21	53
EBITDA 이익률(%)	11.0	14.6	19.6	11.9	21.4
증가율(%)	-31.9	45.3	45.6	-36.1	150.8
영업이익	6	7	17	4	32
영업이익률(%)	4.3	4.6	10.1	2.2	13.0
증가율(%)	-56.3	16.8	142.3	-77.3	731.8
영업외손익	-4	15	-74	-3	-1
금융수익	0	31	1	2	3
금융비용	3	15	76	5	4
기타영업외손익	-1	-2	0	0	0
중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2	22	-57	1	31
증가율(%)	-85.6	818.7	적전	흑전	3,097.1
법인세비용	-1	1	2	-5	-7
계속사업이익	3	21	-59	6	38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3	21	-59	6	38
당기순이익률(%)	2.3	13.6	-35.4	3.1	15.4
증가율(%)	-79.8	542.5	적전	흑전	584.4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3	21	-59	6	38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1	23	30	14	52
당기순이익	3	21	-59	6	38
유형자산 상각비	9	15	15	17	19
무형자산 상각비	1	1	0	1	1
외환손익	0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3	-0	-2	-8	-6
기타	1	-14	76	-2	0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3	-1	-27	-76	-10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4	0	-5	-0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8	-3	-30	-77	-10
기타	-5	-2	3	6	0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	-13	-3	122	1
차입금의 증가(감소)	-4	-7	0	6	1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118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0	-6	-3	-2	0
기타현금흐름	-0	-0	0	0	0
현금의증가(감소)	-6	9	1	59	43
기초현금	12	6	15	15	75
기말현금	6	15	15	75	118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34	44	39	113	170
현금성자산	6	15	15	75	118
단기투자자산	0	0	0	3	3
매출채권	22	21	18	22	30
재고자산	5	5	5	6	8
기타유동자산	1	3	1	8	11
비유동자산	151	144	161	225	215
유형자산	127	123	145	195	186
무형자산	2	8	5	18	17
투자자산	14	6	7	2	2
기타비유동자산	8	7	4	10	10
자산총계	185	188	201	338	385
유동부채	75	183	69	20	27
단기차입금	51	55	50	0	0
매입채무	2	4	2	3	3
기타유동부채	22	124	17	17	24
비유동부채	21	17	23	80	82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15	7	14	70	70
기타비유동부채	6	10	9	10	12
부채총계	96	200	92	100	109
지배주주지분	89	-12	109	238	276
자본금	7	15	22	26	26
자본잉여금	89	10	182	298	298
자본조정 등	-17	-16	-16	-12	-12
기타포괄이익누계액	3	0	0	0	0
이익잉여금	7	-21	-80	-74	-36
자본총계	89	-12	109	238	276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93.9	10.5	N/A	123.8	10.2
P/B(배)	3.5	N/A	5.9	3.1	1.4
P/S(배)	2.2	1.4	3.6	3.9	1.6
EV/EBITDA(배)	18.9	14.2	21.1	35.4	6.5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79	505	-1,417	115	717
BPS(원)	2,126	-279	2,476	4,530	5,204
SPS(원)	3,397	3,704	4,003	3,658	4,654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3.8	54.6	-122.2	3.2	14.8
ROA	1.8	11.3	-30.6	2.1	10.5
ROIC	6.0	1.8	13.2	7.5	16.9
안정성(%)					
유동비율	45.0	24.0	57.5	559.9	632.1
부채비율	108.6	-1,718.9	84.0	42.2	39.5
순차입금비율	75.3	-1,347.5	50.3	-1.0	-16.2
이자보상배율	2.2	0.5	1.1	1.3	10.3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8	0.8	0.9	0.7	0.7
매출채권회전율	7.2	7.2	8.7	9.0	9.5
재고자산회전율	26.0	33.3	34.0	32.4	35.8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지에프씨생명과학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5.26	지에프씨생명과학-화장품 융복합 바이오 소재 전문기업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소중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